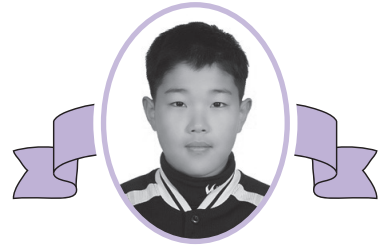


동상





도시 만들기



김도연 | 창원 사파초등학교 5학년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늘로 가는 하늘행 기차를 타고 하늘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들판에 갔다. 내가 이 들판을 보고 처음 생각한 것은 여기에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다. 난 빨리 시민들을 모았고 투표를 통해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난 시장이 되자마자 집 100만 채를 지었고 지상에 살던 사람들도 슬슬 공중에 있는 도시에 왔다. 난 그 다음 시 이름을 정했다. 시의 이름은 하늘시였다. 난 시의 이름을 짓고 바로 은행, 시청,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약 천 개의 공공시설을 만들었다. 참고로 공공시설을 만들 때 필요한 물건들은 하늘자동차나 하늘기차, 하늘버스, 비행기 등을 이용해서 공공시설을 만들었다. 난 공공시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야구장, 놀이동산, 동물원이다. 먼저 야구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야구장이기 때문이고, 놀이동산 또한 이런 이유이다. 마지막 동물원은 이유가 좀 다르다. 왜냐하면 하늘동물원에는 일반 동물들은 기본

이고 멸종된 동물들도 로봇으로 진짜처럼 만들어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한테도 인기를 끌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원이 됐기 때문이다.

하늘시에는 관광객과 인구수가 늘어 하늘광역시까지 되었다. 하지만 이런 하늘광역시에는 단점이 딱 하나 있다. 바로 해양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양자원이 풍족한 지역과 교류를 했다. 하지만 바다가 있는 지역에 비해 신선도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광역시에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하늘공장에서 한 달 동안 신선하게 해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아이스 보관박스를 개발 중이다. 아이스 보관박스만 만들면 하늘광역시 시민들도 신선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늘광역시에만 있는 특별한 미끄럼틀도 있다. 그건 바로 하늘광역시에서 지상까지 갈 수 있는 미끄럼틀이다. 하늘광역시는 지상과의 높이가 약 200m인데 이 미끄럼틀을 타면 약 2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꼭 성인만 탈 수 있다. 둘째, 어지러워서 성인 중에 어지러움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간편한 하늘 미끄럼틀을 탈 수 있다. 난 앞으로 하늘광역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